

무속신화 속 탐색 가치와 여성주체의 의미

오세정*

1. 서론

한국의 신화체계mythology는 건국신화와 무속신화 양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가 주로 고대국가의 시조들의 일대기를 다루었다면, 후자는 무속신앙에서 숭배받는 무속신들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각각은 전승되는 방식에서도 구별되는데 전자는 역사적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후자는 무속제의에서 구연되어 전해진다. 그러나 신화의 속성상 태초의 신화는 제의 속에서 구술전승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한국 신화 연구자들도 두 신화의 관련성과 유사성에 대해서 일찍이 확인했던 바이다.¹⁾

건국신화와 무속신화는 이처럼 신화라는 큰 틀과 같은 뿌리라는 배경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역사 담론과 종교(제의) 담론이라는 다른 전승 맥락으로 인해 차별성을 가지기도 한다. 나아가 이 차별성은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의 문화적 양향 체계로 읽힐 수도 있다. ‘분화된 세계 : 미분화된 세계’, ‘합리적 역사성 : 초합리적 제의성’, ‘남성적 원리 : 여성적 원리’ 등의 문화적 양향 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²⁾

* 한양대학교

1) 김열규, 『한국 신화와 무속 연구』, 일조각, 1977, 서대석,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조동일, 『한국문화통사』1, 지식산업사, 1982.

두 신화체계의 차이 내지 다른 경향은 문화적 국면에서뿐 아니라 서사 차원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사의 본질은 상황의 변화를, 사건을 통해 기술하는 것이다. 특히 신화는 종래의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를 공동체에 가져다 준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속신화가 구현하고 있는 가치 혹은 세계관은 서사 내 주체가 추구하는 가치(대상)와 그 주체를 통해 형상화된다. 본 논의는 한국의 무속신화를 대상으로 건국신화와는 구별되는 서사 내 탐색 가치의 의미와 가치 탐색 과정에서의 여성 주체의 의미와 정체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논의는 한국 무속신화의 서사적 특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무속신화를 전승하고 향유했던 문화공동체의 가치체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한국 신화의 기본 서사구조

이야기, 즉 서사(narrative)의 구조를 밝힌다는 것은 서사의 약호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신화 서사의 갈래상 특성을 이 같은 서사의 약호를 통해서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또한 한국 신화의 공통의 서사구조 내지 기본 서사구조를 통해서 신화 서사가 추구하는 이념 같은 것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화들을 몇 편 선정하여 기본적인 서사구조를 살펴 볼 것이다.

2)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2002, 54~58쪽.

3) 일반적으로 약호는 두 가지로 구성되며, 구분된다. 하나는 닫힌 체계 내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요소들 간 상호 연결되어 체계화된 층위에 존재하는 관계들로 구조적 약호 structural code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면 이 구조적 약호들이 적어도 두 개 이상 연결되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것을 과정적 약호 processual code라고 부른다.

Umbert Eco,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pp.164~188.

먼저 한국인들에게 신화의 대표격으로 인식되는 <단군신화>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군신화

1. 천상의 왕인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있었다.
2. 환웅은 인간세상을 다스리길 원했다.
3. 환웅의 아버지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天符印)을 주어 인간 세상으로 보낸다.
4. 환웅은 천부인과 풍백(風伯)·운사(雲師)·우사(雨師), 무리 3,000을 이끌고 지상에 국가를 세운다.
5. 지상의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하니 환웅이 이들에게 금기를 준다.
6. 호랑이는 실패하나 곰은 환웅의 금기를 지켜 여성으로 화하다.
7. 웅녀가 잉태를 원하자 환웅이 인간으로 화해 웅녀와 혼인하여 임신시키다.
8. 웅녀가 낳은 단군(檀君)이 고조선의 왕이 되다.
9. 단군이 고조선을 다스리다 산신령이 되다.⁴⁾

이 이야기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한다. 제목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의 부모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먼저 환웅은 인간세상의 왕국을 세우고자 욕망한 존재이며, 천상의 왕인 환인의 허락을 얻어 지상의 왕이 된다. 웅녀는 곰에서 인간 여인으로 변신하며, 고조선의 시조 단군을 출산한다. 단군은 천손(天孫)인 아버지와 곰에서 변신한 웅녀와의 혼인을 통해 태어나 고조선을 건국한다.

이 같은 패턴의 서사구조를 가진 또 다른 신화로 고구려의 건국신화인 <주몽신화>가 있다.

4) <단군신화>는 『三國遺事』에 전하는 기록이 가장 풍부하고 안정적인 서사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따랐다.

○ 주몽신화

1. 천제(天帝) 혹은 천자(天子) 해모수(解慕漱)가 인간세상에 건국하여 치세하다.
2. 해모수가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와 정을 통하다.
3. 해모수에게 버림을 받은 유화가 금와(金蛙)에게 붙잡히다.
4. 유화는 금와의 별궁에서 알을 낳고, 이 알에서 주몽(朱蒙)이 태어나다.
5. 주몽이 금와의 왕자들을 피해 졸본지역에 고구려를 세우다.
6. 주몽이 졸본 지역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기반을 닦다.
7. 주몽이 말을 타고 승천하다.⁵⁾

이 이야기도 <단군신화>와 마찬가지로, 주인공과 주인공의 부모가 서사의 핵심인물로 등장한다. 환웅이 나라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모수도 ‘북부여’를 건국한다. 단군과 주몽이라는 새로운 시조를 출산하는 여성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수난과 통과 의례가 이야기로 전개된다. 비교적 인물들의 행위와 그 행위의 인과관계가 자세히 묘사된 이 두 신화와 달리 가야와 신라의 건국신화는 다소 간단한 서사 구조를 보인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는 부모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묘사되지 않는다. 신라땅에는 선주민들의 우두머리인 6촌장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군주(君主)의 출현을 염원하던 중에 알에서 혁거세를 얻는다. ‘천자(天子)’가 강림한 것으로 여기고 혁거세를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한다.⁶⁾ 가야의 수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야땅에는 구간(九干)들이

5) <주몽신화>는 전승본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삼국유사』에서는 가장 간단한 기록만 전하고, <동명왕편>에서는 가장 방대한 양의 이야기가 전한다. 여기서는 『三國史記』를 포함해 세 전승본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 내용만을 간추렸다.

6) 『삼국유사』 『신라시조혁거세왕』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우리들은 위로 군주가 없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까닭에 백성들이 모두 방종하여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 어찌 덕있는 사람을 찾아 군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두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나정 옆에

각 부족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하늘에서 황천(皇天)의 명을 받아 강림을 예고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⁷⁾ 혁거세와 수로는 공통적으로 ‘천자’ 혹은 황천의 명을 받은 하늘의 신인(神人)이 지상에 알로 출현하고, 알을 깨고 태어난 후 각각 건국시조가 된다.

한국에 전승되는 건국신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떤 인물이 어떤 행위를 통해 어떤 결과물을 낳아 이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로 할 수 있다.⁸⁾ 여기서 건국신화의 구체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천상적 인물(신성한 존재)이 세상에 출현하여 (특정한 과정을 거쳐) 건국하고 통치하다.’라고 할 수 있다.

무속신화는 건국신화와 달리 국가를 세우고 통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한국 전역에 전승되는 대표적 무속신화인 <당금애기>와 <바리공주>의 내용을 살펴보자.

○ 당금애기

1. 스님이 인간세상의 아름다운 존재인 당금애기의 소문을 듣다.
2. 스님이 인간세상으로 와서 단힌 대문을 열고 당금애기를 만나다.

번갯불과 같은 이상한 기운이 땅에 드리우고 한 마리 백마가 꿇어앉아 절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찾아보니 한 개의 자색 알이 있었고, 말은 사람들을 보자 길게 울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깨뜨려 사내아이를 얻었다.(我輩上無君王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盍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於是乘高南望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檢之 有一紫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 7)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계육일에 거주하고 있던 북쪽 구지봉에서 수상한 소리가 있어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았으므로 이삼백명이 이육세 모였는데, 사람의 소리 같으나 그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황천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임하여 새로 나라를 세워 군후가 되라 하였다.” (禊浴之日 所居北龜旨 有殊常聲氣 呼喚衆庶 二三百人 集會於此 有如人音 隱其形 而發其音 曰……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 爲君后)

- 8) 오세정, 『한국 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神異에 대한 상상력의 범주와 신화의 사유 체계』, 『한민족어문』 49, 한민족어문학회, 2006, 252쪽.

신화 서사를 주어와 술어를 갖춘 하나의 문장으로 추상화할 수 있다. 이는 요소들의 집합들paradigm 속에서 선택하여 완성된 하나의 통합체syntagm이다. 계열체와 통합체에 대한 논의는 아래 책 참고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1984, pp.170~171.

3. 당금애기에게 운명을 알려주고 하룻밤 동침하다.
4.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어 죽게 된 당금애기를 어머니가 구해준다.
5. 당금애기가 산속(돌무덤)에서 삼형제를 출산하다.
6. 삼형제가 자라 아버지를 찾자 당금애기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다.
7. 스님은 처자식과 상봉하고 그들에게 각각 신직을 부여하다.⁹⁾

○ 바리공주

1. 대왕부부가 길일을 어기고 혼사하여 딸만 여섯을 낳다.
2. 일곱째 딸 바리공주가 태어나자 실망한 부왕(父王)은 딸을 버리다.
3. 석가의 도움으로 바리공주는 구원되어 비리공덕부부에게 양육되다.
4. 병에 걸려 죽게 된 대왕부부를 살리기 위해 약수를 구할 사람을 구하다.
5. 한 신하가 바리공주를 찾아와서 전모를 말하고 바리공주는 부모와 상봉하다.
6. 바리공주는 약수를 구하기 위해 지옥을 통과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여 약을 얻다.
7. 바리공주는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지상으로 와서 부모를 회생시킨다.
8. 부왕은 바리공주에게 신직을 부여하다.¹⁰⁾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두 신화는 ‘인간적 존재(혹은 완전한 신이 되지 못한 존재)가 시련을 극복하고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가족을 구성

9) 무속신화는 건국신화와 달리 문자로 정착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별마다 전승본의 차이가 있으며, 같은 이야기를 구현하는 무당들에게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등장인물과 핵심사건 등은 거의 유사하지만 <당금애기>의 전승본 중에서는 당금애기가 삼신이 되는 부분이 빠진 채, 스님을 만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있다. 무가를 비롯한 구비문학은 각종 연행 맥락에 따라 가변적인데, 따라서 다양한 변이형이 등장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사 내 인과성과 신화적 성격을 갖춘 전승본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 내용을 정리했다.

10) <바리공주> 역시 많은 전승본이 있다. 지역별 전승본에 따라서는 바리공주가 신이 되지 못하고 죽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전승본은 신화적 성격이 거세되고 거의 세속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장 널리 알려졌고, 신성성을 갖춘 이야기를 요약해서 제시한다.

하고 신격으로 좌정되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당금애기>나 <바리공주>뿐 아니라, 많은 경우의 무속신화에서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호남 지역에 주로 전승되는 <칠성풀이>에서는 전설의 소박과 전설 아들과 후실부인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전설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후실부인의 악행을 징치하고 죽은 어머니를 소생시킨다는 내용이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이공본풀이>는 부부와 아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상봉하는 내용이다. 남편은 천상 꽃밭의 꽃감관 직을 맡게 되어 임신한 아내를 두고 혼자 천상으로 가게 되고, 아내는 아들을 출산한 후 악한 주인에게 죽게 된다. 아들은 고생 끝에 천상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회생시킨다.

영웅의 일대기나 그 모험담을 중심으로 보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사 패턴을 보인다. 서구에서는 캠벨(Joseph Campbell)에 의해 이야기 전통의 원형으로서 신화의 성격과 가치가 주목받았다.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 이야기 구조를 12단계로 진행되는 영웅의 여행담 내지 모험담으로 볼 수 있다.¹¹⁾ 일상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주인공에게 요구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관문을 통과하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 전리품을 획득하여 세상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각종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가장 확실한 원천 소스이자 전범이 되었다.¹²⁾

한국에서도 이야기 전통 중 영웅들의 일대기는 신화서사의 주인공의 삶의 궤적을 따르고 있다. 조동일은 고귀한 혈통과 비정상적 출생을 시작으로 성장과정을 거쳐 승리자가 되기까지를 7개 항목으로 정리했다.¹³⁾ 이 이야기 구조에 들어맞는 인물로 구전설화에서 고전소

11) Christopher Vogler,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쓰기』, 함춘성 역, 무우수, 2005, 53~71쪽.

12) 오세정, 「전통적 영웅 이야기의 콘텐츠 개발 현황」, 『한국고전연구』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163~164쪽.

13)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81, 288쪽.

설, 나아가 근대 소설의 인물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서사 전통에서의 영웅의 일대기는 크게 ‘출생’, ‘성장·투쟁’, ‘승리’로 재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주몽’이나 ‘바리공주’는 동일한 패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별 신화들에서 서사의 핵심 요소들을 추출해 보면, 탄생, 결혼, 성장, 즉위와 같은 제의적 서사소(敍事素, *narrateme*)들이다.¹⁴⁾ 신화에서 신적 존재들의 특정한 행위들이 대부분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왕으로 즉위하거나 신격으로 좌정하는 존재론적 변화를 수반한다.¹⁵⁾ 영웅의 여행담 구조 12단계나 영웅의 일대기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패턴, 유사하거나 혹은 동일한 제의적 신화소 등은 신화라는 서사 갈래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 약호라고 볼 수 있다.

3.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이중적 탐색 가치

앞에서 살폈듯이 신화는 서사의 문법 내지 구조가 비교적 뚜렷하게 인지되는 갈래이다. 비록 두 신화체계에서 추구하는 대상은 각각 ‘국가(시조)’와 ‘신직(神職)’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야기 속 등장하는 인물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최종 과업을 성취하는 문화영웅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기존 논의들도 주인공들의 탐색 가치와, 탐색 과정 등에서 유사한 패턴을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무속신화를 면밀

14) 오세정, 『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 원리』, 한국학술정보, 2005, 45~46쪽.

15) 신화에서는 주인공의 존재론적 변신이 핵심이다. 서사의 본질인 사건이 결국 변화를 본질로 삼는다는 데에서 신화는 서사의 원질적 요소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사의 사건에 대한 논의는 아래 책 참고

Mike Bal,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Christine van Boheemen, trans., Tronto University Press, 1985, pp.13~14.

제의적 신화소(ritual mytheme)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 참고.

하게 분석하면 건국신화와 달리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 혹은 탐색 가치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속신화의 주제적 측면과 가치를 탐색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레마스A. J. Greimas는 유한 수의 요소가 유한 수의 방법으로 배치되어 이야기라고 인지하게 되는 구조를 생성하는 문법을 찾고자 했다. 특히 이야기의 의미구조 분석을 위해 ‘주체 대 객체(대상)’, ‘파송자 대 수령자’, ‘원조자 대 적대자’로 행위를 범주화 했다.¹⁶⁾ 여기서 서사의 주체는 주인공이 추구하는 대상이나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서사의 전개는 주인공이 탐색 대상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가 새로운 가치의 기원 혹은 생성을 다룬 이야기라면, 이 같은 서사의 본질적 특성은 서사 내에서 추구하는 가치, 즉 탐색 대상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잘 형상화된다. 서사의 핵심 사건들을 대상으로 행위주체와 상태주체와의 관계로 파악하면 보다 명쾌하게 드러난다. 행위주체의 행위에 의해 그 영향을 받아 상태주체는 대상을 얻거나 잃게 될 수 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었다.’에서는 행위를 한 아버지가 행위주체가 되며, 그 행위에 영향을 받아 천부인 세 개를 소유하게 된 상태주체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환인 → (환웅 ∩ 천부인)]

16) Terence Hawkes, 『구조주의와 기호학』, 오원교 역, 신아사, 1998, 126~128쪽.



이상과 같이 서사 내 각종 양상을 [행위주체 → (상태주체 \cap 혹은 U 대상)]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¹⁷⁾ 이 같은 도식은 이야기 속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 양상을 한 눈에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환웅의 이야기를 간단한 통합체로 정리하면 ‘환인의 명에 따라 환웅은 인간세상으로 내려가 왕이 되다.’이다. 수로나 혁거세의 신화에서도 하늘의 명에 따라 주인공들이 시조왕이 된다. 반면 <주몽신화>에서는 이 같은 절대신격의 파송자가 직접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몽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시련을 겪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왕위를 쟁취해야하는 운명이다. 그런데 <주몽신화>의 각편에 따라서는 주몽의 탄생과 건국을 미리 예견하는 신적 파송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삼국유사』 『동부여』에서는 주몽의 건국에 대한 전조(前兆)가 나온다. 북부여의 왕 해부루의 대신인 아란불의 꿈에 천제가 내려와서 이르기를,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여기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는 여기를 피하라.”라고 하였다.¹⁸⁾ 또는 주몽의 부모의 혈통의 신성성, 그리고 주몽이 왕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운명 등을 감안한다면 결국 절대신격의 파송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환인 → (환웅 \cap 인세)]

[하늘 → (혁거세 \cap 신라)]

[하늘 → (수로 \cap 가야)]

[하늘 → [주몽 → (주몽 \cap 고구려)]]

17) Anne Hénault, *Narratologie, sémiotique générale*, P.U.F, 1983, p.91.

18) 『삼국유사』에 따르면 해모수가 지상에 건국한 국가는 북부여이다. 유화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가 해부루이다. 그런데 해부루에게는 아들이 없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었다. 해부루는 금와를 얻어 왕위를 계승하는데, 금와는 동부여의 왕이다.

무속신화에서는 주인공이 최종 과업을 완수하고 신격을 획득하는 서사 전개가 이루어진다. 당금애기가 인간에서 삼신이 되는 것은 신격인 스님에 의해서이다. 바리공주에게 신직을 주는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인 대왕이다. 당금애기나 바리공주가 신격이 되는 양상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스님 → (당금애기 \cap 신직)]

[대왕(부왕) → (바리공주 \cap 신직)]

따라서 우리 신화는 주인공이 건국하고 왕이 되거나, 신직을 받게 되는 전체 서사의 통합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절대신격(혹은 하늘) → (천상혈통의 주인공 \cap 왕위, 혹은 인세)]

[절대신격 → (인간적인 주인공 \cap 신직)]

이상에서 신화의 주인공들은 서사 내 핵심 가치(신격의 지위나 왕위)를 특정 파송자의 명에 따라 취득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건국신화와 무속신화에는 이 같은 대상의 획득 내지 가치 추구에 차이가 있다. <바리공주>에서 대상을 획득하는 주체는 바리공주 뿐 아니라 이야기에서 중요 가치인 생명을 얻게 되는 부왕이 존재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 (바리공주 \cap 약수)]

↓

[바리공주 → (아버지 \cap 생명)]

↓ 이야기 전개 순서

↓

[아버지 → (바리공주 \cap 신직)]

건국신화는 주인공의 부모나 자식 등 몇 대를 거친 인물들이 등장

한다 하더라도 각 인물들의 행위들은 항상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령 부모대의 인물들이 만나고 결혼을 하면, 다음 단계로 출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물은 성장 과정을 거쳐 즉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바리공주>에서는 아버지가 명해서 바리공주가 생명수를 취득하게 되고, 바리공주는 취득한 생명수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다. 그러자 다시 아버지는 바리공주에게 신직을 주어 신으로 좌정시킨다. 이 같은 서사전개는 비단 <바리공주>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당금애기>도 마찬가지이다.

<당금애기>에서 가치를 생성시키는 핵심사건으로 가장 먼저, 스님은 당금애기에게 삼형제를 임신시킨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스님은 당금애기에 신직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행위주체는 스님인 것이다. 그런데 당금애기는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과제를 부여한 신격인 파송자에게 자신의 행위로 특정한 결과물을 가지게끔 한다. 즉, 당금애기가 행위주체가 되고 신격인 파송자인 스님이 상태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리공주>나 <당금애기>와 같은 무속신화에서는 행위주체와 상태주체가 서로 대상을 취할 수 있도록 상호 행위주체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환웅이 환인에게, 혹은 단군이 환웅에게, 주몽이 해모수에게 특정한 행위주체의 기능을 수행해서 특정한 대상을 취하게 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스님 → (당금애기 ∩ 3아들)]

↓

[당금애기 → (스님 ∩ 가정(3아들, 아내)) ↓ 이야기 전개 순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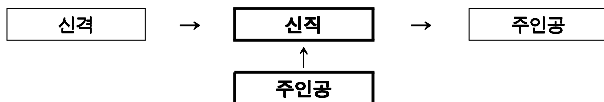
[스님 → (당금애기 ∩ 신직)]

건국신화에서는 파송자가 하늘 혹은 절대신격이며, 주인공에게 왕위 혹은 왕국을 획득하게 한다. 그리고 주인공이 추구한 왕위나 왕국

은 주인공이 수령자 내지 1차적 수혜자가 된다.



무속신화에서도 주인공에 명령하는 자,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물은 주요 신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인공은 최종 과업 완수 후 신격으로부터 신직을 부여받게 된다.¹⁹⁾



그런데 무속신화에서는 주인공이 추구하는 대상이 건국신화에서처럼 일관적이지 않다. <바리공주>에서 주인공이 서사 전편에서 추구했던 가치는 ‘신직’이 아니라 부모를 회생시킬 ‘약수’이다. <당금애기>에서는 여성 주인공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다.



부왕은 자신이 살기 위해 주인공 바리공주에게 약수를 구해올 것을 명했다. 스님은 당금애기에서 자신의 혈육을 잉태시키고 찾아 올

19) 무속신화는 건국신화에 비해서 이야기상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인물이 인간인지 신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공주>의 대왕이다. 하늘의 뜻을 어겨 죽을 병에 걸린 대왕은 생명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대왕은 인간이다. 반면 생명수를 먹고 살아난 후 바리공주에게 신직을 부여하는 모습에서는 신격임이 드러난다. 무속의 신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물의 정체성을 제한하는 것이 애매하다.

것을 명했다. 결국 <바리공주>나 <당금애기>는 파송자인 신격들은 자신에게 결핍된 중요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다른 인물들에게 대상 탐색을 요구한 것이며, 조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에서 핵심가치를 획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바리공주>나 <당금애기>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신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지면 두 신화의 주인공은 여성 인물이 될 것이다. 반면에 부왕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점과 스님이 가족을 갖춘 온전한 존재로 변신했다는 점이 핵심이라면 각 신화의 주인공은 스님과 부왕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건국신화와 달리 무속신화에는 두 가지의 핵심가치가 존재하거나 혹은 어떤 것이 핵심가치인지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 이중적이며 중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4. 무속신화의 여성신격의 정체성과 지위

무속신화는 반드시 무속제의가 진행되는 현장 속에서 구연되고 소통된다. 따라서 신화 텍스트의 발화 조건이나 의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속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무속제에 관한 기록 중,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을유(乙酉)년에 난곡(蘭谷)이란 호를 가진 자가 지은 『巫堂來歷』이 있다. 이 책은 유사한 내용의 두 책을 합본한 형태인데, 이 책의 저자나 저작 연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고구할 수 없다. 책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대략 1825년 혹은 1885년을 저작연대로 추정하고 있다. 20세기 들어 일본인 학자들이 한국의 민속을 연구하면서 무속에 대한 각종 연구와 보고가 시작되었다. 『무당내력』은 19세기 조선시대 무속에 관한 조선 사람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책에는 무속제

의 제차 즉 굿거리가 도상과 함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작은 책] 1. 악공, 2. 감응청배(感應請陪), 3. 제석거리, 4. 별성거리, 5. 대거리, 6. 호구거리, 7. 조상거리, 8. 만신말명, 9. 축귀, 10. 창부거리, 11. 성조거리, 12. 구릉, 13. 뒷전

[큰 책] 1. 부정(不淨)거리(不精으로 되어있으나 오기로 추정됨), 2. 제석거리, 3. 대거리, 4. 호구거리, 5. 별성거리, 6. 감응청배, 7. 조상거리, 8. 만신말명, 9. 구릉거리, 10. 성조거리, 11. 창부(唱婦)거리, 12. 축귀(逐鬼), 13. 뒷전

작은 책과 큰 책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제차(祭次) 역시 비슷한데, 가끔 순서가 달라지는 것은 각 거리를 그린 다음 이를 모아서 묶는 과정에서 생긴 오차로 본다.²⁰⁾ 굿은 크게 ‘청신(請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세 체계로 이루어진다. 감응청배나 부정거리는 청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굿을 하기 위해 굿판을 정화하고, 신들을 부르는 의식이다. 본론격에 해당하는 오신의 단계에서는 각 거리마다 해당 신격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음식과 제물을 바치고 즐겁게 해주는 단계이다. [작은 책]이나 [큰 책]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거리는 ‘제석거리’인데, 무속의 생산신에 해당하는 신격에 관한 유래담인 <제석본풀이> 혹은 <당금애기>가 구연된다.²¹⁾

[작은 책]이나 [큰 책]의 여덟 째 제차는 ‘만신말명’으로 불리는 것으로 무당들의 조상신, 즉 무조신(巫祖信)에 관한 거리이다. 만신(萬神)은 이능화의 『朝鮮巫俗考』에 따르면, 흔히 여무를 말하는데, 무당

20) 『巫堂來歷』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 중이고 해제를 붙인 영인본이 출간되었다(민속원, 2005) 여기서는 서대석의 해제를 따랐다.

21) 일인(日人)학자 赤松智城과 秋葉隆의 『조선무속의 연구』에서는 경성과 오산의 열 두 거리를 싣고 있다. 경성 열두 거리는 ‘부장’, ‘가망’, ‘산 마누라’, ‘별상’, ‘데석’, ‘천왕’, ‘호구’, ‘말명’, ‘군웅’, ‘대감’, ‘창부’, ‘뒷전’ 순이다. 오산 열두거리에서는 ‘부장’, ‘시루말’, ‘데석’, ‘손굿’, ‘군웅청배’, ‘조상’, ‘성주풀이’, ‘성황굿’, ‘계면굿’, ‘터주굿’, ‘마당굿’ 순이다. 赤松智城, 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1938),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은 제사지내지 않는 신이 없으므로 ‘만신’이라고 칭했다고 한다.²²⁾ 또 이 책에서는 ‘말명’은 ‘만명(萬明)’으로 김유신의 어머니가 신이 된 것으로 무당의 조상신이라고 한다.²³⁾ 한국의 무속신앙을 주관하는 사제격에 해당하는 무당을 만신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당의 조상신은 바리공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무당들의 조상신의 내력 풀이 혹은 무당의 연원을 이야기하는 이 거리에서 실제로 바리공주를 구연하지는 않는다. 바리공주는 망자의 혼을 위무하고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이른바 천도제[死靈祭]에서 주로 구연된다.

천도제는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의 별칭이 있다. 한을 씻는다하여 ‘씻김굿’이라고도 하고, 저승과 이승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다리굿’이라고도 하며, 진오귀굿, 시왕굿, 오구굿 등 다양하게 불린다.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천도제에서는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의식이 중요하게 치루어지며, 특히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해주는 바리공주를 위한 말미거리가 반드시 중요 제차로 들어있다.

산사람들의 길복을 비는 재수굿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일반적 형태의 굿인데, 이 굿에서 제일 먼저 초청되는 서열 1위에 해당하는 무속신격이 바로 제석신인 것이다. 제석신의 본을 푸는 이야기에서 제석신은 두 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당금애기를 임신시키는 스님을 제석신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때 제석신은 최고 권능을 가진 천신(天神)을 의미하는데, 도교의 옥황상제에 해당한다.²⁴⁾ 다른 이야기들에서는 당금애기가 낳은 삼형제를 제석신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는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나 <주몽신화>와 같이 천신[환웅, 해모수]와 지신[웅녀, 유화]의 결합으로 탄생한 인간들의

22) 이능화, 『조선무속고』(1927), 이재곤 역, 동문선, 2002, 14쪽.

23) 같은 책, 167쪽.

24) 제석신과 옥황상제는 불교와 도교에서 쓰이는 명칭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무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신으로 여긴다고 한다.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269쪽.

신군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무속신앙에서 숭배되는 신들은 무수히 많다. 그 중 최고의 신으로 모셔지는 제석신은 불교의 제석신앙에 영향을 받아 그 명칭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당내력』이나 『조선무속의 연구』에서도 이 같은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불교에서 제석과 무속에서의 제석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무당내력』에 따르면 단군을 삼신제석이라고 하며, 자식을 점지하고 유아를 보호하는 신이며, 또한 곡물을 주관하는 생산신이기도 하다.²⁵⁾ 반면에 불교에서 제석은 제석천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과 법왕을 보호하는 신으로 무속의 신격과는 다른 존재이다. 요컨대 신격의 명칭이나 위상에 대한 체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무속이 불교의 외피를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⁶⁾

이 같은 상황은 <바리공주>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발견된다. 바리공주는 분명 무당의 조상신이다. 그런데 이 신화는 불교의 세계관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무속신앙의 세계관은 이승과 저승, 사는 것과 죽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까다롭게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미분화된 특성을 가진다.²⁷⁾ 반면 불교는 이승과 저승, 지옥과 극락이 비교적 뚜렷이 구분된다.²⁸⁾ 그런데 불교의 사후관 내지 내

25) 작은 책에는 “단군을 일컫기를 삼신제석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산상왕이 아들이 없어 삼신에게 아들을 빌어 과연 귀자를 얻었다. 그런 까닭에 아들 낳기를 발원하는 습속이 이루어졌다.(檀君稱曰 三神帝釋 高句麗山上王無子 禱于三神 果得貴子 故生子發源成俗耳)”고 쓰여있다. 큰 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제석은 곧 단군 성조인데 일컫기를 삼신제석이라고 한다. 어린 아이 열 살 이내에 혹은 귀험한 곳이 있으면 삼신이 보호한다고 한다. 이하 내용 작은 책과 동일(帝釋即檀君聖祖 稱曰三神帝釋 小兒十歲之內 或有危險之地 三神必保護云...)”

26) 『朝鮮巫俗考』에서는 제석신은 ‘불속(佛俗)’에서 유래한 것이라 못 박고 그 원인을 일연의 『三國遺事』에서 찾고 있다.

이능화, 『朝鮮巫俗考』(1927), 이재곤 역, 동문선, 2002, 21쪽.

서대석은 <제석본풀이>의 제석은 불교의 신명을 따오기는 했지만 한국 고유의 생산신으로 파악한다.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97, 75~76쪽.

27) 김태곤, 「무속과 불교의 습합」, 『한국민속학』 16, 한국민속학회, 1986, 171~172쪽.

28) 김성은, 「한국의 무속과 민간불교의 혼합양상」, 『종교학 연구』 24, 서울대학교 종교학연

세관을 수용함으로써 불교의 신들이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대왕(十大王)인데, 바리공주가 낳은 칠형제들이 바로 이 십대왕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바리공주 일곱 아들은 저승에 십대왕이 되어 먹고 입게 점지한 후에 바리공주는 인도왕국 보살이 되어 절에 가면 수륙제 만발 공양 받으시고”²⁹⁾

이와 같은 무속이 불교를 차용하는 것은 권위있는 정전과 동일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미작용을 강제하는 장치가 된다. 이는 서사 내 동일한 요소들의 반복이 아닌,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해석이나 메타 구조를 동질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⁰⁾

그런데 제석신의 본을 푸는 이 신화에서 주인공은 분명 제석신이 아니고 여성 주인공인 당금애기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당금애기>나 <바리공주>의 다른 이름이다. <바리공주>를 달리 부르는 명칭으로 부왕의 이름을 따서 <오구풀이>라고 한다. <당금애기>

구회, 2005, 80~81쪽.

29) <말미(바리공주)>, 문덕순 구연, 김태곤 편, 『한국무가집』 1, 집문당, 1992.

30) 이는 과정적 약호의 동질화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약호가 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요소들의 세트라고 한다면, 과정적 약호는 체계를 이루고 있는 이 세트들이 다시 역동적으로 결합하여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과정적 약호는 하나의 구조에서 다른 구조로의 해석 translation의 한 종류로도 간주될 수 있다.

Jørgen Dines Johansen & Svend Erik Larsen, *Signs in Use-An introduction to semiotics*, trans., Dinda L. Gorrée & John Irons, Routledge, 2002, p.11.

신화 텍스트 전체, 혹은 신화 체계를 다른 것과 동질화함으로써 신성성과 의의를 부여하는 또 다른 행위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고대국가 신화를 가장 많이 전하는 일연의 『三國遺事』 기이편 서문에서 발견된다. 일연은 우리의 고대국가 제왕들의 이야기들이 괴력난신이 아니라 중국의 제왕들의 전범에서와 같이 신이한 것이라고 역설한다.(叙曰 大抵古之聖人 方其禮樂與邦 仁義說教 則怪力亂神 在所不語 然而帝王之將興也 膺臚命 受圖籙 必有以異於人者 然後 能承大變 握大器 成大業也…… 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此紀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 이는 이야기의 해석과 수용을 둘러싼 맥락적 차원에서 권위 있는 정전과 동질화하고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 별칭으로 스님이나 당금애기가 낳은 자식들을 지시하는 <제석본풀이> 혹은 <삼태자풀이>가 있다.

건국신화에서 등장인물들의 지위나 서사 내 추구하는 가치 등 핵심 요소들이 위계화되어 있다. 반면 무속신화에서는 그 기능이나 양상 자체가 중첩되어 뚜렷한 위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특히 신화 속 등장인물이 신인지, 인간인지도 불분명하다. 가령, 바리공주에게 신직을 부여하는 부왕은 인간인가, 신인가? 신직을 부여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분명 인간이 아닌 신인데, 옥망에 사로잡혀 금기를 위반하고 병에 걸려 죽게 되자 막내딸에게 매달리는 유약한 인간이기도 하다. 하늘의 절대신이 속세의 여성을 남몰래 꺾어 임신시키는 것은 과연 그 품격에 맞는 행동인가? 이 같은 혼란과 모순은 다른 무속신화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신직을 받은 이의 아버지나 남편은 대부분 이러한 속성을 띤다. 그렇다면 무속신화에서 아버지와 남편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지위를 점유하는가?

무속신화에서는 아버지나 남편을 신격화한다. 이는 신화가 가진 운명론적 속성이기도 하다. 신화에서의 신적 존재들은 범인들과 달리 문화나 생명을 유래하게 한 막강한 권능을 소유한 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맨 처음 세상이 생길 때부터 존재하던 절대신격은 아니다. 그런 신은 논리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수한 신들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우리 세계에 많은 신들을 보낸 더 상위의 신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신격은 <단군신화>의 환인처럼 구체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수로신화>에서처럼 하늘의 소리로 표상되기도 한다. 건국신화의 통합체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행위주체가 바로 이들인 것이다. 그런데 무속신화에서는 건국신화에서처럼 절대 권위를 가진 신격이 최초의 행위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격이 파견한 신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무속신화에서는 주인공이 신이 되는 것이 핵심 가치, 즉 서사의 주

제로 볼 수 있지만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는 것이 주지한 바다. <바리공주>에서 최고의 가치를 획득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무조신이 된 바리공주인가, 생명을 얻게 된 부왕인가? 혹은 바리공주가 낳은 아들들인가? <당금애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삼신신이 된 당금애기인가, 아들과 아내를 찾게 된 스님인가, 새롭게 태어난 아들들인가? 다른 무속신화에서도 이 같은 핵심 탐색가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무속신화에서 신으로 좌정하는 인물들을 대부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시련을 겪는다. 주인공의 희생의 수혜자는 아버지나 남편, 자식들이다. 이는 희생하는 여성 인물을 통해 결핍된 가족 구성원이 충족되거나, 해체되었던 가족이 다시 복원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속신화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주제이다. 가족의 구성이나 복원은 남성 주인공의 성숙 내지 가장으로서의 지위 획득을 의미한다. 비록 신격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무속신화에서는 궁극적 목표이자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건국신화에서 신화적 권위와 해석의 정당성 획득이 주인공에게 가치를 획득하도록 하는 최초의 행위주체를 신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면, 무속신화에서는 아버지나 남편, 아들이 그 같은 가치의 진원지 역할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보루가 되고 있다. 또한 무속신화에서 파송자로서 신격이 주인공의 아버지 혹은 남편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 논리가 국가와 민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막강한 정치적 코드로 의미작용을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내는 위계화를 통해 여성 주체의 지위와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다.³¹⁾

31) 이 같은 논리는 무속신화가 비록 건국신화와 달리 정치적 신화의 속성을 덜 가진 종교적 신화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치적 약호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루드는 정치적 신화를 정의하면서 사회 집단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것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이데올로기가 유표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신화의 경우, 국가와 가족, 그리고 그 집단의 대표와 구성원에 대한 논리가 우리의 무속신화에서 유표화된다고 할 수 있다.

G. C. Flood, *Political Myth: A Theoretical Introduction*, Garland, 1996, p.44.

가정 내에서 여성은 아버지, 남편, 아들 이라는 세 명의 남자에게 종속되며, 당연히 그들보다 지위가 낮다. 당금애기는 남편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위기에 빠진다. 남편은 절대권능을 가진 석가세존이거나 무속 최고 지위의 생산신인 제석신이 되고 자신은 삼신할미가 된다. 혹은 당금애기가 낳은 자식들은 삼신제석, 혹은 삼불제석이 되어 인간들이 가장 숭앙하는 절대신이 되고 자신은 그를 보조하는 직능을 수행한다. 바리공주는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유기되며, 약수를 얻기 위해 남편인 무장승의 모든 요구를 묵묵히 수행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칠형제는 이후 10대왕이 되어 신이 된 바리공주보다 상위의 신격이 된다.³²⁾

한국의 무속신화에서는 여성주인공들은 가부장제의 상위 존재들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운명에 던져진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난제를 풀고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집안 남성들의 결핍을 충족시키거나, 그들의 존재론적 상승을 성취시키는 매개자 역할로 최종 자리매김된다. 서사 속에서만의 기능이 아니라, 이후 무속신앙 체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직능 역시 마찬가지이다.

5. 결론

신화는 인간이 대면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야기로 풀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신화의 전승집단의 근원적 사유와 결코 쉽게 소멸되지 않을 문화적 기억과 흔적들이 이 이야기 속에 응축되어 있다. 신화 전승집단은 자신들이 가장 기억하기 좋은 방식으로

32) 시왕(十王), 즉 십대왕은 명부 세계에서 심판을 맡고 있는 심판관이다. 망자는 이 십대왕에게 어떻게 판정받느냐에 따라 사후 운명이 결정된다. 바리공주의 역할은 망자를 명부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이지 자신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혹은 공동체의 삶의 리듬을 표방하고 패턴화해서 이야기로 전승시켰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의 의미와 집단의 가치를 지시하고 있다. 신화 서사에서 실현된 가치 탐색, 가치 획득을 통한 사회와 개인의 존재론적 변화는 공동체의 이념이나 세계관을 응축시켜 표현한 것이다.

무속신화는 건국신화와 달리 서사 내 주체와 탐색 가치가 이중적 혹은 상호 중층적으로 얹혀있다. 그리고 가치를 탐색하고 존재론적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체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격으로서의 지위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한정시켜 확정한다. 가정으로 표상된 최소 공동체, 내지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을 성립시키고, 그 구성원들의 결핍을 충족시키고, 집단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중심에 있는 자가 무속신화의 여성 주체들이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그들은 서사 내 가치 실현의 오롯한 주체가 아닌, 매개자로 최종 자리매김된다. 이는 무속신앙 체계 속에 존재하는 무당, 신도, 나아가 당시 여성들의 모순적 존재론에 대한 형상화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은, 『한국의 무속과 민간불교의 혼합양상』, 『종교학 연구』24,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2005.
- 김열규, 『한국 신화와 무속 연구』, 일조각, 1977.
- 김태곤 편, 『한국무가집』 1, 집문당, 1992.
- 김태곤, 『무속과 불교의 습합』, 『한국민속학』 16, 한국민속학회, 1986.
- 서대석,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97.
- 서울대학교 규장각, 『巫堂來歷』, 서대석 해제, 민속원, 2005.
-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2002.

- 오세정, 「전통적 영웅 이야기의 콘텐츠 개발 현황」,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 오세정, 「한국 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神異에 대한 상상력의 범주와 신화의 사유체계」, 『한민족어문』 49, 한민족어문학회, 2006.
- 오세정, 『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 원리』, 한국학술정보, 2005.
-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이능화, 『朝鮮巫俗考』(1927), 이재곤 역, 동문선, 2002.
- 一然, 『三國遺事』, 최호 역, 홍신문화사, 199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82.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81.
- Anne Hénault, *Narratologie, sémiotique générale*, P.U.F, 1983.
- Christopher Vogler,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쓰기』, 함춘성 역, 무우수, 2005.
-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1984.
- G. C. Flood, *Political Myth: A Theoretical Introduction*, Garland, 1996, p.44.
- Jørgen Dines Johansen & Svend Erik Larsen, *Signs in Use-An introduction to semiotics*, trans., Dinda L. Gorlée & John Irons, Routledge, 2002, p.11.
- Mike Bal,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Christine van Boheemen, trans., Tronto University Press, 1985.
- Terence Hawkes, 『구조주의와 기호학』, 오원교 역, 신아사, 1998.
- Umbert Eco,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 赤松智城, 秋葉隆, 『朝鮮巫俗の 研究』(1938),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Meaning of Quest for Value and Female Subjects in Korean Shaman Myths

Oh, Sejeong

Unlike the founding myths, subjects and objects of narrative are intertwined as the double layered or mutually in shaman myths. Especially what is the final quest or goal of the story is difficult to judge. For example, the final quest of <Baridegi> is the revival of the King, or the Princess's transformation? This case can be found in other shaman myths.

The myths show the community's important values and meanings, and confirm the collective ideology, ethical norms, and the way of behavior. Typically, the core value or idea of the story is expressed through the protagonist's identity and capability. The heroines in the shaman myths are subject to meta-principles such as patriarchy.

The identity and status of the female subjects are determined and severely restrict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home. The female subjects acquired the objects and have a ontological transformation in the process of quest for family.

열쇠어 : 신화, 건국신화, 무속신화, 무속, 무속제의(굿), 가치 탐색, 주체와 대상, 가부장제, myth, foundation myth, shaman myth, shamanism,

shaman ritual, quest for value, subject and object, patriarchy

투고일 : 2009.10.30 / 심사일 : 2009.11.20 / 심사완료일 : 2009.12.07